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



▲ 이상수 과장

- 1987 농림부 축정과, 축산경영과, 축산물유통과
- 199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998 농림부 감사관실, 축산경영과, 축산물위생과
- 1996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 2008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장
- 2009.4~현재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장

최 근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축산단체들이 계획하는 각종 행사들이 무더기로 취소되고 각급학교는 물론 공공시설에 까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온 힘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본고는 지난 4월 동물방역과장으로 부임한 이상수 과장을 만나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응책과 AI 등 양계분야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등을 들어보았다.

방역은 제2의 국방

이상수 동물방역과장은 59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사료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농림부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물 유통과에서 기초 실무를 담당한 후 1997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몸을 담은 바 있다. 2006년부터는 축산경영과장직을 맡으면서 농가 사료가격 지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2008년 자연순환팀장으로 보직을 옮겨 농가의 골칫거리로 다가선 분뇨의 자원화사업에 노력해 왔다.

금년 4월부터 맡게 된 동물방역과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책과 AI 재발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면서 '방역이 제2의 국방'이라는 것을 몸소 실

천하고 있다. 이 과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옹고 그림이 분명하고 선이 굵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축산인들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정부 대응책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미 돼지인플루엔자를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고 동질병을 살처분 명령대상 가축에 포함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양돈 농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는 사람으로부터 가축으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축산관련 대규모 행사는 원천적으로 취소하는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예외적으로 개최가 불가피한 국제적인 행사, 중앙부처의 협의를 선행한 축제 및 행사는 시행하되, 복지부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감염예방 편람' 준수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중단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AI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이상수 과장은 동물방역과의 양계분야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 AI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가금티푸스 예방대책, ND 근절대책을 중점사항으로 언급했다. 그는 특히 2003년부터 3차례에 걸쳐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내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에서는 AI 재발방지를 위해서 2008년 7월부터 능동적 사전예찰 중심의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AI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로 유입가능 경로별로 연중 예찰검사(임상예찰과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국내 유입여부를 조기에 검색하고 있음을 강조했

다. 그는 정부를 위시하여 축산농가 및 학계 등 모든 관계자들이 합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 HPAI가 국내에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농장내 질병 차단

이상수 과장은 최근 가금티푸스 문제가 종계장, 일반 실용계 농장은 물론 삼계관련 농가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정부에서는 가금티푸스 근절방안으로 종계장 및 부화장 등에 대한 난계대 전염병 감염실태 파악을 통한 방역관리방안 마련 및 양계농가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 검사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뉴캐슬병 방역대책으로는 정부에서 ND 예방약을 부화장(720백만수분)과 양계농가(650백만수분)에 전액 지원하여 예방접종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부화장 및 양계농장에 대한 예방접종 실태, 방역실태 등을 점검하여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ND 방역대책을 개선 보완토록 할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이상수 과장은 최근의 축산업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질병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질병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가별 규모화 등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 등도 적극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과장은 대한민국 축산업 경쟁력의 열쇠는 가축질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특유의 추진력으로 방역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